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고 은 임*

I. 서론

「원천강본풀이」는 독립된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구연되지 않는 제주도 무가이다. 「원천강본풀이」라는 제목으로 현전하는 각편으로는 赤松智城, 秋葉隆에 의해 채록된 ‘박봉춘본’과 진성기에 의해 채록된 ‘조술생본’이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전혀 다른 내용을 취하고 있다. 서사가 짧고 전해지는 각편이 적은데다 두 각편의 서사가 현저하게 달라 논의에 어려움이 있는 까닭에서인지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위상,¹⁾ 제의적 측면,²⁾ 신격의 정체³⁾ 등 주로 무속 제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서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이수자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처음 이뤄졌는데, 이수자는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박봉춘본’이 원래적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1)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783~818면.
- 2)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2.
- 3)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자료라 판단하고, ‘박봉춘본’을 중심으로 ‘오늘이’는 원천강이라는 역법을 처음 창안한 여신이며 원천강본풀이는 이 여신의 근본 내력을 풀어주는 신화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복여행담의 기원신화일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후 강권용은 「원천강본풀이」를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와 함께 특수본풀이로 분류하여 그 제의적 성격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원천강본풀이」의 두 가지 각편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원천강의 신격을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원천강본풀이」 서사를 오늘이가 심방이 되는 과정으로 논의하며, 「원천강본풀이」가 신곳에서 불러졌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한편 김혜정은 ‘원천강’이란 이름의 의미에 천착하여 그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박봉춘본’은 구복여행담이 여신의 좌정담으로 바뀐 것이고, ‘조술생본’은 ‘아기장수전설’의 변이형이라 보았다. 각편에서 원천강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시대별 무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며, 무당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결국 「원천강본풀이」가 곳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논의했다.

「원천강본풀이」는 전혀 다른 내용의 두 편의 각편만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뿐 그 구연상황이나, 곳의 기능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총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무가인지 그 정확한 정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자들의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며, 그것의 무가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논의가 집중되어 정작 그 서사 자체가 갖는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략한 편이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는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에 대한 서사로서, 무심하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변민, 삶에 대한 실존적 고뇌가 예사롭지 않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 자체에 보다 집중하여 그 서사적 의미와 ‘오늘이’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신화적 사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원천강본풀이」 자료 개관

‘원천강본풀이’라는 제명으로 현전하고 있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1930년대에 赤松智城, 秋葉隆에 의해 채록된 ‘박봉춘본’ 자료와, 1950년대에 진성기에 의해 채록된 ‘조술생본’ 자료가 그것이다.⁴⁾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료는 그 내용에 있어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

옥 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 나타났는데 학조가 보호하여 살아왔다.

사람들이 성명과 태생을 물었으나 이 아이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사람들이 ‘오늘이’라 이름을 지어준다.

오늘이는 이리저리 다니다 백씨부인에게 가서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사실과, 원천강에 가는 방법의 실마리를 듣는다.

별충당에 가서 청의 동자 장상이를 만나 그에게서 길 인도를 받는 한편, 왜 책만 읽으며 외출하지 못하는지 물어달라 부탁받는다.

연꽃을 만나 다음 길 인도를 받고, 왜 연꽃 상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데는 안 피는지 물어달라 부탁받는다.

청수야당가에서 大蛇를 만나 길 인도를 받고, 여의주 세 개를 물어도 왜 용이 안되는지 물어달라 부탁받는다.

매일이를 만나 길 인도 받고 글 읽는 팔자 물어달라 부탁받는다.

구명난 바가지로 물을 푸는 시녀 궁녀를 만나 그 일을 도와 주고 별당으로 인도 받는다.

별당 둘레는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였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원천강이 우니 문을 열어 준다.

오늘이 부모를 만나 서로의 사연을 나눈다.

오늘이가 원천강을 둘러보고 부모에게 여행길에 만난 이들의 문제 해결법을 듣는다.

4) 각각의 자료는 현재 赤松智城, 秋葉隆의 『조선무속의 연구』(심우성 역, 동문선, 1991, 292~299면)와 진성기가 편한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614면)에 실려 있다.

돌아오는 길에 매일이에서 장상이까지 차례로 문제를 해결해준다.
 백씨부인을 만나 은혜를 갚고 옥황의 신녀로 화한다.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한다.

2.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

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하니 나라에서 잡으려 한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자신의 종적을 모른다고 하라며 장판 뒤 독을
 심어 숨는다.
 나라 사령이 남편을 잡으려 하나 찾지 못하여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여인과 아이를 원천강 집으로 보내 남편이 외도한 것처럼 꾸미니 원천강이 화사
 나 독을 열고 남편에게 따져 묻는다.
 사령이 기회를 타서 남편을 잡아간다.
 남편이 잡혀가며 아내를 원망하면서 아내에게 원천강이나 보며 살라 한다.

‘박봉춘본’은 ‘오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자신의 부모를 찾아 떠나는
 여행담이고, ‘조술생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결국 왕 되기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이다. 두 각편 모두 원천강의 기원을 설명하는 서사인데, 같은 작품이
 라 하기에는 의아할 정도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처럼 두 각편의 서사
 가 전혀 다른 까닭에, 두 각편의 존재는 텍스트 이해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조차 없는 「원천강본풀이」 연구에 오히려 혼란을 가
 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⁵⁾

두 각편 모두 ‘원천강’의 연원을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기에 ‘원
 천강의 본을 풀다’는 제명과 서사가 그리 어긋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각편에서 ‘원천강’은 각각 ‘춘하추동 시절이 모다 있는 곳’(박봉춘본)과
 ‘점치는 여성’(조술생본)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와 함께 ‘점서’라는 의미를

5) 이수자는 ‘박봉춘본’을 원형에 가깝다고 한 반면 ‘조술생본’은 「원천강본풀이」 신
 화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혜정은 두 각편 모두 「원천강본풀이」
 의 각 편으로 간주하여 서로 다른 시대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았다(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
 학의 진전』, 태학사, 199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신명
 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어 두 각편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⁶⁾ 그러나 이수자의 논의대로 ‘박봉춘본’의 서사는 신의 공업과 그 신직이 일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신화가 내포해야 할 요건을 갖춘 반면 ‘조술생본’의 서사에는 신들의 공업담도 없고 신직이 나타나지 않으며 서사구조 역시 일회적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신화라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화적 성격이 보다 뚜렷한 ‘박봉춘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원천강본풀이」 서사체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III. ‘오늘이’ 여정의 의미

1. 자아 찾기의 과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의 부모찾기 여행담이다. 생일, 부모, 이름 등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녀가 사람들로부터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부모를 찾아 떠나는 길에서 여러 존재들을 만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길에서 연을 맺은 이들에게 신탁을 내린다는 내용이 그 줄거리이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구복여행담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항상 구복여행담과의 관계가 논의되어왔다.⁸⁾ 실상 「원천강본풀이」와 구복여행담은 주인공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인간,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신탁을 내려준다는 구조

6) ‘원천강’의 의미는 선행연구 비중 있게 논의된 바 있다. 그 가운데 김혜정(앞의 논문, 255~266면)의 논의가 자세한데,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논의할 것인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필 것이다.

7) 이수자, 앞의 논문, 797~798면.

8) 이수자는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담의 모태가 되었다고 본 반면, 김혜정은 구복여행담이 ‘자신의 운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주는 여신의 좌정담’으로 탈바꿈했다고 보았으며, 강권용은 구복여행담의 화소가 신화에 혼입된 것으로 보았다(이수자, 앞의 논문; 김혜정, 앞의 논문; 강권용, 앞의 논문 참조).

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원천강본풀이」에는 구복여행담과는 별도로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신화적 사유가 노정되어 있어 그것대로의 서사적 의미를 찾는 일이 또한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원천강본풀이」와 다른 설화와의 관련성은 뒤로하고 그 서사에 담긴 신화적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오늘이는 생일, 부모, 이름 등 자신의 근본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아이이다. ‘오늘이’라는 이름도 주위 사람들이 ‘오늘을 낳은 날로 하여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라’ 하여 얻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지니고 있다가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지체 없이 길을 떠난다. 서사 자체에는 오늘이의 내면이 섬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해 무지한 오늘이는 그 때문에 심각한 번뇌에 빠졌던 듯하다. 부모가 있는 장소를 알자마자 여정을 모르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그동안 오늘이가 정체성 문제로 얼마나 번뇌해왔는지, 자신의 근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여행길에서 오늘이는 차례로 장상이, 연꽃, 大蛇, 매일이, 선녀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역시 오늘이만큼 고뇌에 빠진 존재들이다. 장상이는 왜 자신이 밤낮 글만 읽으며 외출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가지에만 꽃이 피는 연꽃은 가지마다 꽃피우지 못함을 걱정하며, 대사는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서도 용이 되지 못함을 번민하고, 매일이는 장상이처럼 글 읽는 자신의 팔자에 대해 의문스러워한다. 그리고 옥황에서 득죄한 선녀들은 구멍 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며 물이 안 퍼지는 것에 대해 근심한다. 오늘이는 이들에게 길 인도를 부탁하는 대가로 원천강에 도착하면 고민을 물어달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⁹⁾

9) 선녀들의 고민은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 바가지의 구멍을 메워 물을 퍼내준 오늘이는 문제 해결의 대가로 원천강까지 인도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강권용은 채록 당시 박봉춘 심방이 관습적으로 부르던 어구라고 간주하였다. 선녀의 바

이들의 도움으로 오늘이는 원천강에 무사히 도착하고 드디어 부모님과 대면한다. 이로써 오늘이는 부모의 정체, 자신의 탄생에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된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이의 1차적 자아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부모, 탄생, 이름 등은 인간에 있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들이다. 즉 인간은 자의에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 놓여지는 존재인데 이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곧 1차적 자아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곧 자의와 관계 없이 놓여진 삶의 터전에서 자의에 따른 선택을 행하게 된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이 역시 원천강에서 부모를 만나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인지하고 1차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후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여기서 원천강이라는 장소는 오늘이의 자아형성에 있어 또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천강은 오늘이의 부모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지키게 된 곳인바 인세의 공간이 아니다. 오늘이가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과정은 서사무가의 일반적인 선계여행담의 원형을 따르고 있다. 무속의례에서 핵심을 이루는 선계여행담은 일반적으로 생명수 탐색과 返魂을 목적으로 하여, 샤먼이 되는 인물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산 지는 넘나들 수 없는 천상이나 저승 등 이계를 다녀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¹⁰⁾ 바리공주가 부모의 병을 고칠 약수를 찾아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여행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여행담은 이러한 서사무가의 선계여행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¹¹⁾ 여기서 ‘원천강’은 오늘이의 선계여행담의 목적지로 옥황상

가지 구멍을 송진으로 막아 준 대목은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당시 박봉춘이 구연한 「세경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이공본풀이」에 이 대목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으며, 특히 「이공본풀이」의 다른 구연본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박봉춘 심방의 개인적 구연습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강권용, 앞의 논문, 33면).

10)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54~64면.

11)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에는 선계여행의 핵심적 요소인 ‘죽음’과 ‘재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이는 전통적인 샤먼의 형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보인

제의 관리 하에 있는 선계의 공간인 것이다.

한편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춘하추동이 모두 모여 있는 장소로 묘사된다. 즉 원천강이란 장소는 사계절이 모두 있는 장소이며, 이곳을 지키는 오늘날의 부모는 사계절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원천강은 ‘일정한 주기가 반복됨으로써 재순환(recycle)하는 세계’를 말하며, 따라서 이 장소를 관리하거나 다녀온다는 것은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돕는 ‘四季’ 혹은 시간 그 자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는 규칙적인 반복이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대전제를 기저에 둔 ‘점’의 속성과 연결된다.¹²⁾ 원천강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오늘날 부모가 오늘날의 여행길 조력자들의 고민을 듣고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은 그것 그대로 신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원천강을 다녀온 오늘날이 신녀로 화한 이후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는 결미의 내용은 ‘원천강’이 선계 원천강에서 배운 원리를 기술한 ‘점서’임을 짐작하게 하면서 ‘원천강’과 ‘점’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원천강’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명리학자 袁天綱 혹은, 원천강이 지은 『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라는 命理書에서 유래된 듯하다.¹³⁾ 원천강의 본명은 守成이며, 생물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隋나라 초기에 태어나 唐나라 초기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는 사주명리로 이름이 높았고 『袁天綱五星三命指南』라는 명리서를 남겼다고 한다. 이를 줄여 『袁天綱』이라 부른다. 원천강이 살았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하지만, ‘袁天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초 태종실록에서야 보이는바, 정확히 언제 우리나라에 그의 존재가 알려지고 『袁天綱』이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초에서 말기까지 『袁天綱』이 명과학에서 과거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여러

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2) 김혜정, 앞의 논문, 257면.

13) 원천강을 명리서 『袁天綱』과 관련지어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한 것은 김혜정의 연구가 자세하다. 여기서는 김혜정의 논의에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 『袁天綱』이 언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정리하고자한다. 『袁天綱』의 유래와 향유에 관해서는 조규문의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의 내용을 참조했다.

문인들의 기록에 그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명리서로서 그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袁天綱』은 사주팔자에 대한 명리서인데, 조선시대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무가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원천강본풀이」의 선계 공간 ‘원천강’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자. 이제 ‘원천강’은 사주팔자에 대한 명리서 『원천강』의 원리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원리가 발생하고 관장되는 신화적 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원천강’ 경험은 오늘날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원천강에서 오늘날은 선계 원천강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명리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원천강에 도착하여 부모를 만나 자신의 근본 내력을 듣게 되면서 그토록 원하던 1차적 자아 정체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원천강의 원리를 깨달아 체득하고 배우면서는(오늘이는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곳을 곳곳마다 문을 열어 춘하추동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여행길에 만난 이들의 물음에 대해 부모에게 그 해결책을 듣는다) 2차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드디어 오늘이가 점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심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천강’은 오늘이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이다. 근본과 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자, 심방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원천강은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장소이며, 그곳을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후의 오늘이는 연속되면서도 서로 다른, 변화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로써 원천강으로의 여정은 일종의 통과의례이자 그것 자체로 한편의 성장 드라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원천강 여정이 오늘날의 개인적인 성장에 국한된 서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신화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어 세상살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지점에서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상보성의 서사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는 내적고민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인물이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심과 인정은 오늘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질인 동시에, 오늘이 이야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상보성’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보성’이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도와 補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모든 것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고, 존재란 이러한 상호관련성 혹은 전체의 관계망 안에서 성립한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인바, 오늘이 이야기全般에는 이와 같은 상보성의 사유가 깃들어 있다.

앞 절에서 자세히 논의했듯 원천강은 오늘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이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 서사 전체를 관조하면 한 차원 더 확장되고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원천강은 異界의 공간으로 공간적 배치를 보면 청수와당이라는 물을 경계로 하여 지상과 수평적 공간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공간 배치는 우리 신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인데 우리 신화에서 천상계는 지상과 수직적 공간에, 서천꽃밭이나 극락세계, 저승, 신선세계 등은 수평적 공간에 위치한다.¹⁴⁾ 즉 원천강의 공간은 서천꽃밭, 저승, 극락세계와 그 공간적 위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천강은 공간적 위상뿐만이 아니라 서사에서의 신화적 의미 역시 서천꽃밭 혹은 저승 세계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가 지상에 홀로 내던져진 채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강으로 여정을 떠나며 그 길에서 만난 인간계 존재들의 다양한 문제들까지 짚어지게 되고, 원천강을 경유한 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구조는 「바리데기」 서사와 매우 닮아 있는데, 「바리데기」에서 불라국 혹은 조선국의 문제, 즉 왕의 질병이라는 국가적 문제는 그 내부에서 감당하지 못

14) 서대석, 「한국과 만주 무속신화의 대비 검토」,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2000, 36면.

한 채 국왕에게서 버림받은 바리데기가 나서서 저승을 다녀오고서야 비로소 해결된다. 한 사회의 외부적 존재가 된 바리데기가 그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천서역국 여행을 통해 생명의 약물을 사회 내부로 가져온다는 「바리데기」의 구조는,¹⁵⁾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오늘날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여정 중에 여러 존재들의 문제까지 떠안고 원천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이제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그곳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상계와 구별되는 선계(원천강)를 경험한 오늘날은 이미 지상의 존재가 아니다. 외부의 공간을 경험한 외부인으로서 바리데기처럼 내부(지상계)의 문제해결자가 된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늘날이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천상계 존재인 선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상의 존재인 오늘날은 구명 난 바가지 때문에 물을 건지 못하는 선녀를 만나는데, 오늘날이 구명을 막고 물을 건자 순식간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역시 선녀의 입장에서는 외부(지상계)의 존재가 내부(선계)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지상의 존재 오늘날이 선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강이라는 이계를 경험한 오늘날이 다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의 존재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앞서 살핀 바리데기 서사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렇게 보면 지상과 이계는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당면한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단독으로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고, 오늘날이라는 샤먼의 매개를 통해 각 세계의

15) 이에 대해서는 조현설의 「세 신화 세 현실」(『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221~4면)에 자세히 다룬다. 조현설은 이 논문에서 국가 사회는 권력(왕권)과 문명에 의해 동물과 인간이 긴밀하게 유대를 이뤘던 원시사회의 문화적 균형이 깨진 사회인데, 그러나 바리데기와 같은 무속신화가 시조신화(원시사회의 사유) 모형을 재현함으로써 국가적 사회가 지닌 근원적 결함을 치유하는 경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논의하였다. 즉 사회를 조절하는 힘(약물)은 사회의 외부에 있는데 무당(바리데기)이 자연의 내밀한 힘과 접촉함으로써 그것을 사회 내부로 가져와 국가적 사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바리데기」의 진정한 함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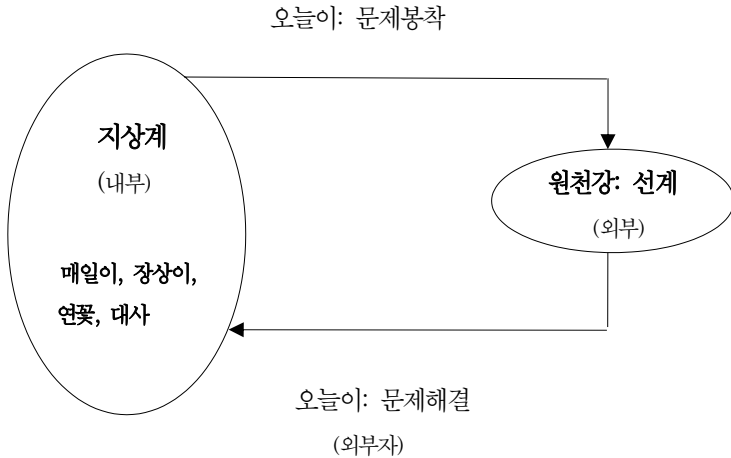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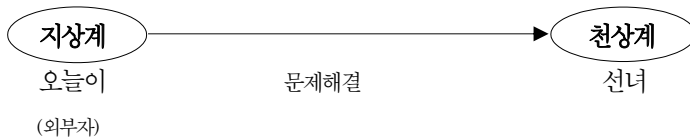


그림 2.

외부 요소가 내부적 문제들을 치유한다. 따라서 각 세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하며 두 세계의 유대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상대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외부가 없는 내부는 있을 수 없고 내부가 없는 외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보적 관계란 자아의 존립이 타자의 존재 하에 성립된다는 사유 위에, 서로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완하며 상생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지상과 이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보적 관계는 인물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획득하고 지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 존재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난다. 매일 반복되는, 책 읽는 삶을 고민했던 매일와 장상은 둘이 혼인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

들과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인간다운 삶이 결여되었던 두 사람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 즉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 탁월한 방책이 되었고, 더군다나 서로 닳아 있어 소통이 잘 되었을 까닭에 그들의 결연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데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이는 大蛇와 연꽃에게도 해결 방안을 알려준다. 대사는 구슬을 세 개나 물고 있으면서 용이 되지 못함을 고민하고, 연꽃은 상가지에 만 꽃이 피는 것을 고민하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해답은 각각 두 개의 구슬을 버리고 하나만 물어야한다는 것과, 상가지의 꽃을 꺾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사와 연꽃은 모두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않아 더 큰 일을 이루지 못한 존재들로 욕심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 결핍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가득 찬 것이 곧 결핍이고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역설로서 우리가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말아야 할 진리이자 지혜이다. 한편 비워야 채워진다는 논리는 나눔과도 일정하게 관련되는데, 대사가 두 개의 구슬을 증여함으로써 오늘이가 그것으로 백씨부인에게 은혜를 갚고 신녀가 될 수 있었듯이 물질적 비움은 누군가에게 채움이 되고, 마음의 비움은 또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양보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결핍에의 충족은 당사자와 주변을 동시에 채우는바, 여기서 상보성의 원리가 훌륭하게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의 여정은 처음부터 상보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에게 매일이, 장상이 등은 길을 가르쳐 주는 한편 원천강을 찾으면 자신의 문제를 물어봐 달라 부탁하면서, 정체성이 결여된 오늘이와 각기 문제를 지닌 존재들은 서로 도우며 지낸다. 이러한 상보성은 오늘이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더욱 강조된다. 서사 속 인물들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대별되는 지상과 이계의 상보적 관계가 서사의 전체 구조를 이루면서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졌다. 문제해결의 단초가 상보적 관계에서 발견됨으로써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상보성의 저변이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¹⁶⁾

「원천강본풀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고민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고민까지 떠안은 채 그것에 대한 신화적 해명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상호관련성 안에서 존재하며, 또한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이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도움과 나눔의 서사이며, 이러한 지점이 「원천강본풀이」를 오늘이의 개인적 성장 서사로 남겨두지 않고 보편적인 신화의 세계로 이끌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오늘이’의 신적 기능과 신화적 사유

「원천강본풀이」가 오늘이의 자아 탐색 과정을 노정하는 가운데 상보성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원천강본풀이」는 무가의 선계여행담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샤먼의 成巫 의례와 관련되어 있다. 「원천강본풀이」 서사를 분석하는 중에도 오늘이가 종국에 획득하는 것은 심방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이의 신격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살피고, 신화적 인물로서 오늘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오늘이에게는 샤먼으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다. 사마니즘의 결정적인 요소는 제의적 죽음과 재생의 입문적 드라마인데,¹⁷⁾ 오늘이 이야기

16) 본격적인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원천강본풀이」의 이와 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조현설의 「오늘이, 그 이름의 비밀」(웹진문지, <http://webzine.moonji.com/?p=1463>)에서 논의된 바 있다. 조현설은 오늘이가 여행길에서 만난 존재들에 대해 매일이와 장상은 인간, 연꽃나무는 식물, 구렁이는 동물, 선녀들은 신령을 대표한다고 보고 이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영적 세계, 즉 온 우주를 상징하며, 이들의 고쳐하는 것은 온 우주가 앓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이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고민하는 결핍된 존재이므로 이 신화는 ‘결핍된 존재들이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서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야기’라고 논의하며, “오늘이-장상아-연꽃나무-구렁이-선녀들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쇄는 인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는 온 우주”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1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역, 『사마니즘-고대적 집산술』, 까치, 1992, 93면.

에는 죽음과 재생 모티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천강본풀이」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고뇌를 듣고 그 것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주요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서사에서 오늘이가 수행하는 역할은 占師의 직능에 국한되어 있는데,¹⁸⁾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샤먼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바리공주」 서사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바리공주」는 성무의례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巫祖神화이다. 홍태한은 「바리공주」가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 인간, 죽음 세 요소가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서사무가의 전체 유형 분류에서 독특한 위상을 확보할 수”¹⁹⁾ 있었다고 논의한 바 있는데, 바리공주는 특히 부모를 회생시킨 것과 저승세계 여행 중 수많은 망자를 천도해준 공업이 높기 평가되어 巫祖神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리는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 혹은 사후세계의 일을 훌륭히 관장해 낸 것이다.

그런데 함흥 이고분본 「바리공주」에는 다른 각편에서 보이지 않는 바리의 또 다른 역할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살릴 약수를 뜨러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에서 다양한 존재들과 만나 죄상을 물어달라는 부탁을 받는 이야기와 관련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원천강본풀이」와 매우 흡사하다.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중 만나게 된 이들에게 길을 묻고 그들의 고민을 들은 뒤, 서천서역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답해주는 구조인 것이다. 여기서 함흥 이고분본의 바리공주 역시 오늘이처럼 점복을 한다. 고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샤먼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함흥 이고분본의 「바리공주」에는 다른 본에서 볼 수 없는 샤먼의 역할, 즉 점사적 직능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공주」 서사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는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우선 「바리공주」에서 바리가 만

18) 심방의 직능은 司祭의 직능, 占師의 직능, 靈媒의 직능, 呪醫의 직능, 演藝人的 직능으로 나뉜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39~58면.

19)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147면.

난 이들은 자신들이 죄상 때문에 괴로운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자신의 죄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을 다녀오는 길에 이들에게 답하는 내용 역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이며 죄상의 대가로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의 통보이다. 이 사실을 들은 존재들은 앞으로 지속될 고행을 못 참겠다면 동물들로 변해버리고 만다. 한편 「원천강본풀이」의 존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물어본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일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이 해답을 들은 이들은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로써 보면 과거의 삶, 혹은 전생의 삶을 두루 다루고 있는 「바리공주」 서사에 비해 「원천강본풀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바리에게는 신, 인간, 죽음 세 요소를 매개하거나 관장하는 능력이 있지만, 오늘날의 직능은 현실 문제를 가늠하는 점사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

한편 「원천강본풀이」가 무당의 입무의례인 신굿에서 불렸다고 추정되기도 하는데,²¹⁾ 구연상황은 전혀 알 수 없으나 서사의 내용으로 보서는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을 바리공주와 같이 일종의 巫祖神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천강본풀이」가 신굿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바리공주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듯 공업담이 소략하고, 그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한참 기울어진다.²²⁾ 오늘날을 무조신으

20) ‘오늘이’라는 이름 역시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서사의 지향과 호응된다.

21) 강권용, 앞의 논문, 42면.

22) 한편 제주도에는 「조공본풀이」이라는 무조신화가 있다. 「조공본풀이」는 무법을 처음 창안하고 무악기와 무구를 만들어 굿을 처음으로 거행한 신들에 관한 본풀이로 무조신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승으로의 여행, 死者의 회생, 무법의 전수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죽음과 재생 모티브가 결여된 「원천강본풀이」가 무조신화로서의 完整된 형태를 띤 「조공본풀이」 위치를 위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원천강본풀이」가 후대적 서사라는 생각을 전제한 것인데, 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강본풀이」는 『袁天綱』과 일정한 관련을 맺는바, 『袁天綱』이 유명해졌던 조선시대 이후가 「원천강본풀이」의 형성

로 간주한다면, 현전하는 서사로는 점사적 직능에 한정된 무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이가 바리테기와 같은 무조신으로 좌정하지 못하고 점사적 기능을 하는 신으로 머물고 있지만, 구체적 직능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의 서사가 보여주는 신화적 세계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술했던 바와 같이 외부의 존재로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면모와, 문제해결방식에서 보여주는 신화적 사유 방법이 닮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결핍된 존재들이 어울려 서로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관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개인을 전우주와 관계 맺는 존재로 파악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사유로서 ‘대칭성 원리’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²³⁾ ‘너’와 ‘나’를 동일시하는 ‘대칭적 원리’는 때문에 상생, 상보의 원리에 다름 아니고, 이러한 신화적 사유는 비대칭관계의 현실에서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류의 ‘마음’, 대칭성 무의식 없이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는 인류의 근원적 속성을 자극하고 충족시킨다. 바리테기와 오늘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상보성’은 이와 같은 신화적 사고에서 배태된 것인바, 비대칭관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시기가 아닌가 한다. 혹은 기존의 전해 내려오던 원형태의 「원천강본풀이」 서사가 이 무렵 변형된 채 현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원천강본풀이」 서사에서 샤먼의 원형태를 찾아 보기 힘들다는 점도 이것이 후대적 서사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 이후 생성되거나 혹은 변형된, 현존 형태의 「원천강본풀이」 서사는 「초공본풀이」에 맞서 심방의 기원을 풀이하는 무조신화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기 힘들었으리라 생각된다.

- 23) ‘대칭성 원리’란 모든 존재는 상호관련을 맺고 있고 ‘전체와 부분이 일치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현실세계가 비대칭적 관계로 이뤄졌다는 것을 간파한 신화는 그런 관계를 반전시켜 대칭적 관계로 바꾸고, 전체와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는 식의 사고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신화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들 상호간에 변신과 소통이 가능하며 강한 감정적 동일성이 형성되는데, 이는 현실의 사냥꾼과 야생동물이라는 비대칭적 관계를 전복시켜 공생공락을 이루려는 신화적 사유의 소산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김옥희 역, 동아사이, 2009.) 참조.

V. 맺음말

본고는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그 서사적 의미와, 신격, 신화적 사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이라는 인물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로, 상보성을 긴요하게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심방의 기원 신화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현재 독립된 제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한, 두 편의 채록된 각편만 전해내려오는 실정이지만, 그 서사 자체에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신화적 사유가 담겨 있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제의가 소실된 무가이지만 제주도 무속의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될 때 보다 선명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미처 하지 못했다. 또한 관계 자료를 구하기 힘든 「원천강본풀이」자료적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무속신화를 비롯하여 구비문학 전반에 시야를 넓혀 관련 논의를 풍부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점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진영·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서대석·박경신, 『한국고전문학전집』 30,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가의 연구』, 동문선, 1991.

2. 논저

-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_____, 「한국과 만주 무속신화의 대비 검토」,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편,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2000.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사, 2010.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_____,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동은 지춘상박사 정년 기념 논문 간행위원회 편,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정숙영, 「친절하고 따뜻한 그녀-오늘이」, 서대석 편, 『우리고전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조현설,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2006.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005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대청성 인류학』, 동아아시아, 2009.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역, 『샤머니즘-고대적 점신술』, 까치, 1992.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2.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9.
- 조규문,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조현설, 「세 신화 세 현실」,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 조현설, 「오늘이, 그 이름의 비밀」, 웹진문지(<http://webzine.moonji.com/?p=1463>).